"진안군 성공시대 함께 만들 것"

전춘성 군수, 당선 후 첫 회의 가져… 고향사랑기부제 등 선제적 대응 강조

전춘성 진안군수는 7일 지방선거를 마치고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일 행사에 참여한 이후 군청에 출근하여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로 주요업무보고를 주관했다.

전 군수는 이날 군청으로 출근해 별도의 환영식 없이 바로 회의를 주관하면서 그간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를 노고를 격려한 후 부 군수 권한대행기간 중 처리사항과 선거 이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에 대해 간부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들샘개발, 양수기 구입 및 보수, 농업용 관정 보수 등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면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밭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없는지 빠르게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6월 말 예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서면 및 현장 평가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선정 등 지방소멸위기대응 관련 사업 관련 많은 시간을 할애해 예산확보 및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간부공무원을 독려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7일 지방선거를 마치고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일 행사에 참여한 이후 군청에 출근하여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로 주요업무보고를 주관했다.

전춘성 군수는 "선거기간 중 많은 군민을 만나면서 앞으로의 4년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큼을 몸소 느꼈기에 당선에 대한 기쁨보다는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막중함 책임감이 앞선다"며 "진안군이 제2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추진

무주군, 서울시 50+세대 대상

무주군이 무주군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사업'이 도시민들에게 무주 정주환경을 위한 정보제공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역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알리고, 실질적인 관계 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50+세대(만 45-65세)를 대상으로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은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서울시 50+세대를 전북 소재 기업(기관)에 배치해 컨설팅, 판로개척 등 지역체류를 통해 활동 수행과 지역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무주군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는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을 통해 선발된 50+세대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무주의 기업 또는 기관에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마을디자인 및 기업 경영자문 등 다양한 활동으로 현장 인턴십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최일섭 센터장은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전문재능인력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등 도농간 상생협력사업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어촌워킹홀리데이 in 전북'을 성공모델로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기업(기관) 등과 협력 사업을 통해 농촌 활력방안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학생들, 전국소년체전서 우수한 성적 거둬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장수군 관내 학생들이 경기에서 값진 메달을 수확하며 체육 미래의 꿈을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51회 전국소년체전체육대회에서 소프트테니스, 골프 종목에서 장수군 학생들이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소프트테니스 전북 대표로 선발된 박희열, 송민호, 서문수연, 이태연 4명의 선수는 남녀부 단체전 결승에 진출해 각각 은메달을 수상했으며, 골프 단체전에서는 장수중 2학년 신범식 학생이 출전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순창초, 순창중앙초와 함께 연합팀으로 구성된 소프트테니스 남초부 전북 선발팀은 30일 제주와의 4강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31일 경북선발팀과 결승전을 치렀으나 0:2로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여초부 또한 30일 충북과의 4강전에서 2:1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으나 31일 경북선발팀에 0:2로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골프 단체전에서는 장수중 2학년 신범식 학생이 전북 선발팀으로 출전해 28일 138점, 29일 141점을 따며 2라운드 합산 279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건강 살핀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코로나19 전수 무료검사 · 건강검진 실시

무주군보건의료원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무료검사와 건강검진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 여부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속속 입국하면서 사전 건강검진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네팔) 130명과 베트남등 결혼이민자 130명(수시입국)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는 간과 신장기능, 혈당, 소변검사 등 기본검사와 A·B형 간염과 마약, 결핵 등 감염병 검사, 그리고 폐암과 전립선암(50세이상), 유방암(30세이상) 등이다.

또 본격적인 농번기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농가 고용주를 통해 외래과 진료 및 상급병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무료 검진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무주군에서 건강한 생활로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검진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탄생 158회 기념행사 거행

3.1 독립선언 민족대표이자 근세불교의 선각자이신 백용성조사 제158회 탄생 기념행사가 6일 오전 10시 용성조사의 생가가 있는 장수 죽림정사 교육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해오던 행사를 2년 6개월만에 오프라인으로 가진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정토회원 등 420여명이 모처럼 교육관을 가득 메우고 용성조사 생가와 기념관등 유적지를 둘러보는 등 활기를 띄웠다.

(사)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정토회가 주관한 이날행사에서 조사 행적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죽림정사 주지 유수스님의 인사에 이어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법류스님은 기념법문을 통해 조사님이 태어나서 열반까지의 발자취와 독립운동사, 그리고 용성 조사님의 3대가르침인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지성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조사님의 독립정신과 대각사상를 기렸다.

1864년 음력 5.8일 장수 죽림촌에서 태어난 배용성조사는 한국 현대불교 기반을 닦은 선지식으로 종로 한복판에 대각교당을 세워 불교를 도심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등 생활 불교, 바른 불교의 기풍을 마련했다.

불교계 대표로 3.1독립 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우리 민족을 독립케 하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라며 민족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용성조사님을 비롯한 역대조사께 다례재를 올렸으며 오후에는 법륜스님의 즉문즉설도 진행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전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 시 · 군 선정

무주군이 전라북도가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라북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현년도(2021년) 및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 8개 분야 10개 지표의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군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 관리 대책을 수립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행하면서 자발적인 분할 납부,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힘써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질체납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 분석 후 재산을 조회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212억 중 199억을 징수하면서 94%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했으며,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0억 원 중 33%인 3억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둬 세외수입 운영 전라북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돼 시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찾아가는 금연캠프 운영

진안군은 7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찾아가는 금연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금연캠프는 금연을 희망하고 있으나 바쁜 농사일 등으로 시간을 내기 쉽지 않거나 직장 생활로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행은 7일 안천면을 시작으로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마다 한 달 동안 관내 10개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열린다.

금연 캠프에서는 전북금연지원센터, 전북권역심뇌혈관센터와 연계해 '흡연이 심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나서 특강도 실시한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동맥경화 검사, 심방세동 검사, 중성지방 및 지질검사 3종 등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검사 후에는 전문의가 검사결과에 대해 1:1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라 더욱 구체적인 금연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중학생 대상 제주도 역사탐방 실시

재단법인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관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역사탐방을 실시한다.

역사탐방은 3박4일 일정으로 △6월 7일~10일(진안중, 진안여중, 용담·진성·부귀·주천중학교), △7월 11일~14일(백운·안천·동향·마령중학교)에는 총 2회로 나눠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안전하고 유익한 역사탐방을 위해 학교 담당자들이 모여 사전교육시간을 가졌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역사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국내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